

“이제는 가족입니다”

2007 제6차

대전가족공동체 포럼

| 일시 | 2007년 11월 6일(화) 07:00~09:00

| 장소 | 대전광역시청 시티홀(20층)

| 주최 | 대전발전연구원

포럼 진행 일정

구 분	시 간	내 용
제1부	회원간 교류 및 식사	
	07:00~07:05	○ 등록
	07:05~07:25	○ 회원간 교류 및 식사
	07:25~07:30	○ 휴식
제2부	사회 : 주혜진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07:35~08:10	○ 대전시 가족정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발표자: 정재춘 (대전광역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장)
	08:10~08:40	○ 질의 및 자유토론
	08:40	○ 폐회

제6차 대전 가족공동체 포럼 참가자 명단(가나다순)

성명	소속	전화번호
강금자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	625-5446
강병도	대전지방경찰청외사계장	609-2176
강승수	전국결혼이민자연대 대표, 대전 모이세 대표	639-2665
구영본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총괄팀장	252-9989
김규복	성나의 집대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대표	622-3389
김다남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부소장	625-5446
김동식	대전금빛평생교육봉사단 단장	628-3404
김문규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531-3712
김미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대전·충남여성비즈니스센터대표	526-2862
김미희	천주교 대전교구 이주사목부 상담실장	639-2665
김소연	대전모이세 사회복지사	639-2665
김순미	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정보학과 교수	821-6848
김영순	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정보학과 조교	821-6816
김영주	대전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부 위촉연구원	471-5696
김윤경	대전장애인가족지원센터팀장, 대전장애인부모회사무국장	488-9457
김인정	대전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부 위촉연구원	471-5696
김태훈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600-5080
김학원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議)600-5014 事)523-4477
명영호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복지담당	600-3551
문영삼	대전금빛평생교육봉사단 사무국장	528-7382
박노동	대전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471-5643

성 명	소 속	전 화 번 호
박선아	대덕구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637-8848
박종민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보육담당	600-3554
손정애	사회복지사	041-856-7071
손진분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600-2525
송영희	대전시 중구청 복지과 여성아동담당	606-6431
송정옥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정책팀	600-2521
신보미	대전 가톨릭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636-2036
유창상	한국장애인부모회 대전시지회 고문	535-4240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 원장	471-3620
이나영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250-1508
이선옥	한국장애인부모회 대전시지회장	488-9457
이성순	목원대학교 이주여성연구소	829-7288
이연복	우송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629-6162
이영숙	대전서구소아어린이집원장, 대전보육시설연합회서구지회장	584-2662
이영자	용두어린이집원장, 대전보육시설연합회 사무국장	253-4809
이용란	대전 가톨릭 가정폭력상담소 상담팀장	636-2036
임향이	여성긴급전화 대전1366 상담원	222-7042
장금식	대전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대전시 새마을부녀회장	471-2902
정귀영	한국경제인협회 대전충남지회장 대전문화사대표	252-7208
정선기	대전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	471-5627
정재춘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과장	600-2520
정진숙	새뜸어린이집원장, 대전국공립법인보육시설대덕구지회장	639-3600
주혜진	대전발전연구원 여성정책부 책임연구원	471-5696
차성란	대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252-9989
차정자	대전시 보육시설연합회장, 대전시립어린이집 원장	521-0835

제6차 대전 가족공동체 포럼 운영위원

성명	소속	전화번호
정선기	대전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	471-5627
김순미	충남대학교 교수(소비자생활정보학과)	821-6848
주혜진	대전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471-5696

2007 대전 가족 공동체 포럼은

-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의 흐름 속에서 대전지역의 가족현상을 파악하고,
- 가족의 가치확대와 가족의 문제점해결을 위한 대전시민의 정책적 의견을 수렴하며,
- 변화에 적응하는 가족의 모습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문화를 이끌어내고,
- 건강한 가정과 미래경쟁력을 가진 대전을 만들어가는 지역사회 시민운동 (New City Movement)으로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7 대전 가족 공동체 포럼은

포럼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 실행하고 있다:

1) 대전가족포럼

- ① 목적 : 대전지역사회의 가족공동체에 대한 정책적 의견 수렴
- ② 방법 : 전문가 및 대전시민을 초청한 조찬포럼
전문가 및 집단(교수, 지역사회의 민간단체, 기업, 종교인 등등)
시민 : 시의회 및 가족에 관심이 있는 대전시민
- ③ 효과 : 지역 민간단체 및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통합적 가족정책수립
대전시, 시민, 단체 및 기업 등이 함께 하는 가족공동체문화 확산
- ④ 시기 : 7회(2007년)
- ⑤ 주관 : 대전발전연구원

2) 가족관련행사

- ① 목적 :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대전시민의 자발적 참여운동
- ② 방법 : -캠페인 및 슬로건 : 지속성행사
 - 목적 : 가족이미지, 가정철학 찾기(발견하기)
 - 방법 : 캠페인/슬로건 <-언론, 기업, 민간추진단체 등등
 - 효과 : 캠페인에 의한 언론성->시민계몽 및 교육효과-가족슬로건(표어) 만들기 :

이젠 “가족”입니다 와 관련된 슬로건만들기 (공모/컨설팅)

-가족코칭 프로그램 운영

· 목적 : 가족의 문제발견과 해결

· 방법 : 전문가 활용(라이프코치, 가족코치 활용)

-가족에 관심있는 시민모으기 운동

· 목적 : 대전시민의 가족문제에 대한 관심유도

· 방법 : 자발적인 가족운동지원/ 단체중심의 운동지원

-특별 행사(주제/ 월별/ 주체/대상가족 등등)

· 방법 : 대전시 주관 가족 프로그램 진행

기업추진 가족 프로그램지원(대전시와 공동진행)

민간단체추진 가족 프로그램지원(대전시와 공동진행)

③ 시기 : 2회(2007년)

④ 주관 : 대전시, 대전발전연구원, 민간단체, 기업 등등

2007년 가족정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대전광역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



< 목 차 >

I. 추진 배경

II.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III. 주요 정책과제

IV. '07년 추진성과 및 한계

V. '08년 사업추진 방향 및 계획



I. 추진배경

차
례

- 1. 가족의 변화
- 2. 가족정책의 새로운 요구
- 3. 기존 가족정책에 대한 평가

I. 추진배경

1. 가족의 변화

1) 가족구조 및 형태의 변화

- ?가족 규모의 축소와 세대 구성의 단순화(핵가족 증가, 평균 가구원 수 감소)
- ?가구 형태의 다양화(맞벌이, 한부모, 재혼, 국제 결혼 가정 증가)

2) 가족기능의 변화

- ?재생산기능의 급격한 하락(합계 출산율 세계 최저 / '05년 1.08명)
- ?자녀양육 및 가족복지기능 약화(돌봄, 부양에 대한 가정의 기능 →사회로 전환)

3) 가족가치관의 변화

-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결혼기피, 이혼율 증가, 행복한 삶과 가족에 대한 기대 상승
- ?전통적 성역할 의식 지체와 세대간 부양인식 약화
 - 권위주의적 부부관계에서 수평적부부관계로 변화 진행
 - 양육, 부양에 대한 가족의 돌봄 부담이 과중해 짐에 따라 아동 및 노인학대 증가

2. 가족정책의 새로운 요구

1) 가족복지의 해체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

- 가족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가족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2) 맞벌이 모델로의 전환

- 가족, 기업, 지역사회 등 사회환경 전체가 양성평등 및 가족친화적 구조로 재편 필요

3) 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거시-미시 정책의 조화

- 국가정책의 거시적 목표와 시민생활의 미시적 조건이 가족정책을 통한 조율 필요

3. 기존 가족정책에 대한 평가

1) 가족의 변화에 대응한 보편적 가족정책의 미흡

? 아동양육, 노인부양 서비스 개선 및 공급 확충 필요

2) 성인지적 가족정책의 기초는 마련 되었으나, 제도 정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미성숙

? 다양한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제도 활용 여건의 미성숙으로 활용도는 낮음

3) 다양한 가족 출현에 대한 대응 미흡과 예방적 가족정책의 부재

? 맞벌이 가족, 한부모 가족, 국제결혼가족, 재혼가족, 조손가족 등 다양한 다양한 가족에 따른 행정수요 대처 필요

4) 가족의 행복은 미래의 경쟁력, 국가경쟁력

? 대전 가족의 유지 발전 및 행복 증진을 위한 가족정책사업 확대 필요

5) 행복한 가정 만들기

? 2007년 "이제는 가족입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지역사회운동 확산과 함께 「행복한 가정만들기」를 시정의 목표로 추진

<<주요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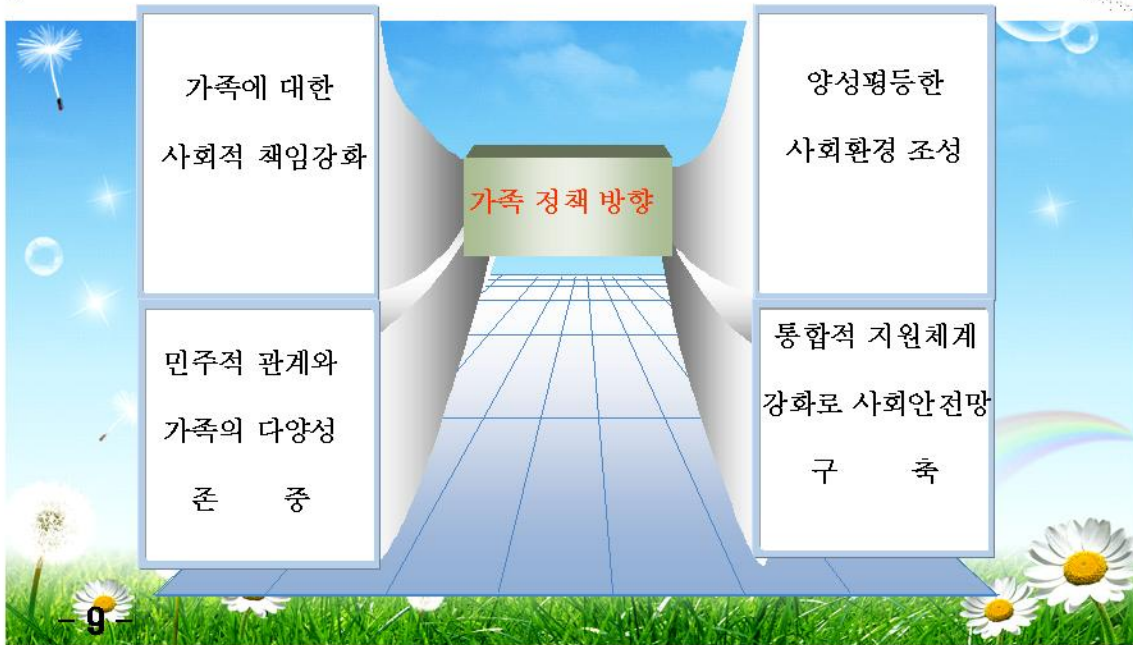


II.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차 례**
1. 가족정책의 방향
 2. 정책비전 및 목표

II.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1. 가족 정책의 방향



2. 정책비전 및 목표



III. 주요 정책과제

1. 정책과제 목록



<<1. 가족돌봄의 사회화>>



Ⅲ. 주요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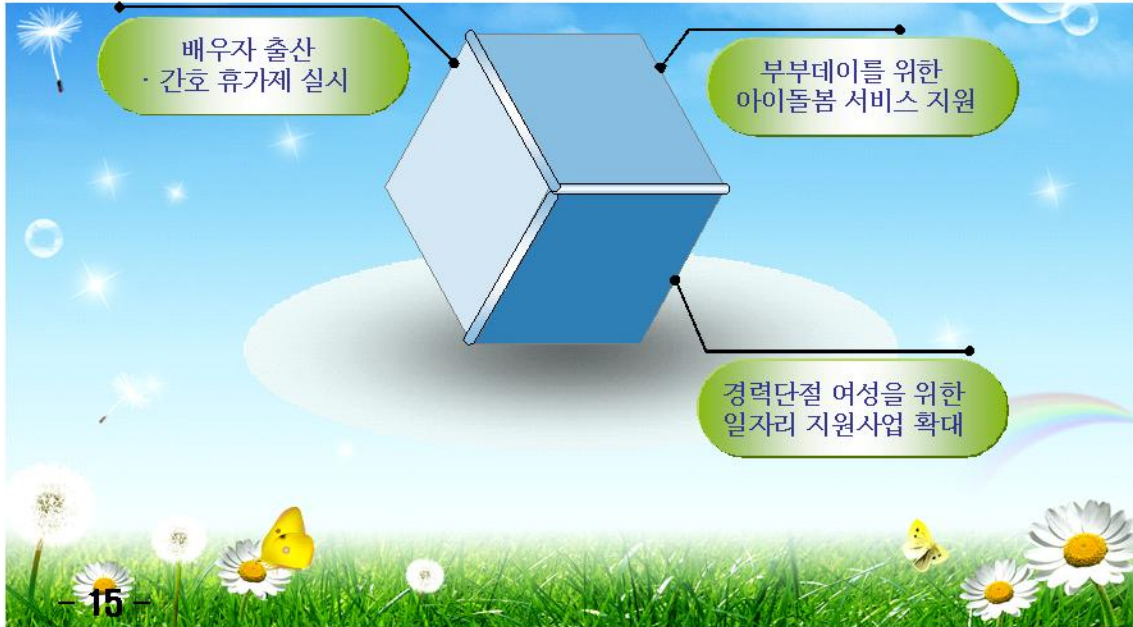
- 지**
리
1. 정책과제 목록
 2. 세부추진과제에 따른 추진실적

Ⅲ. 주요 정책과제

1. 정책과제 목록



<<2. 직장가정의 양립>>



Ⅲ. 주요 정책과제

1. 정책과제 목록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Ⅲ. 주요 정책과제

1. 정책과제 목록



<<4.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Ⅲ. 주요 정책과제

1. 정책과제 목록



<<5.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 조성>>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문제 예방

- 다문화 가정 사회통합행정 설명회 개최
-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생활법을 안내 및 교육
- 결혼준수 인식 개선 교육
- 건전가정 실천 수기공모 및 동반대회
- 예비부부교육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체험시티투어
결혼이민자가족등

- 가족 봉사단 운영
- 건강가정 지원센터 기능 강화

족 친모결연

Ⅲ. 주요 정책과제

1. 정책과제 목록

가족돌봄의 사회화	직장 가정의 양립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6대 핵심영역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조성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6. 가족정책인프라 확충>>

1. 가족정책의 총괄 조정체계

- 가족 정책 기본계획 수립
- 대전시 건강가정위원회 구성
- 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2.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확대 및 운영내실화

2. 세부추진과제에 따른 주요 추진실적

1) 가족돌봄의 사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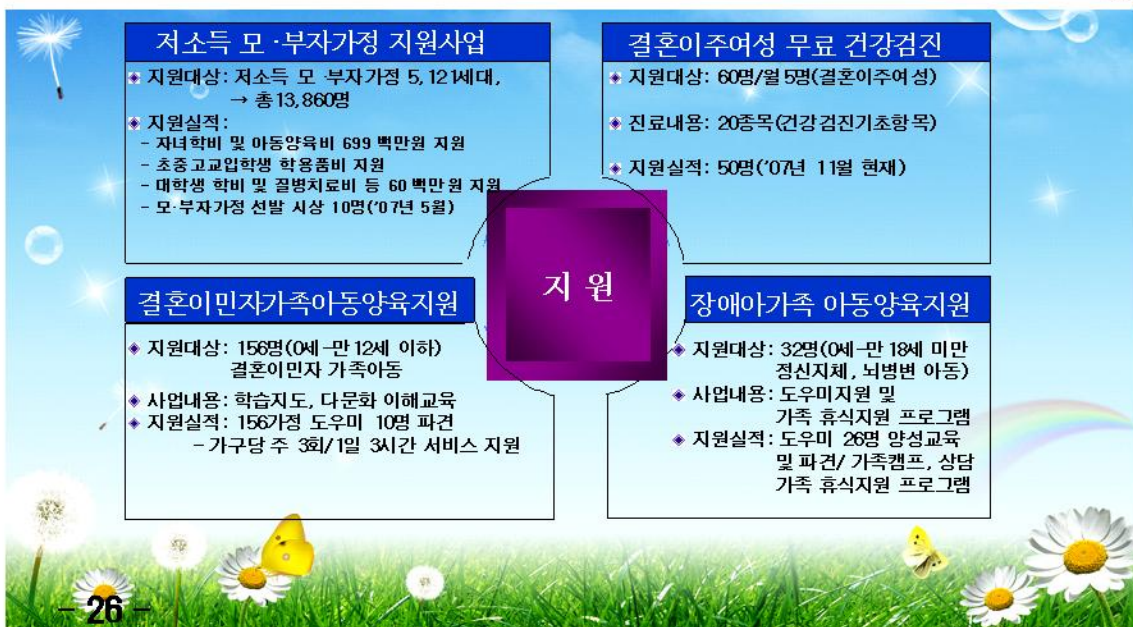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강화

<p style="text-align: center;">1. 아동 돌봄 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0-12세 미만 • 지원실적: 30명 660가정 파견('07.9.30 현재) 	<p style="text-align: center;">4. 독거 노인 도우미 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15,561명 • 지원실적: 생 활지도사 105명/지 원노인 10,581명('07.9.30 현재)
<p style="text-align: center;">2. 아동 급식 지원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결식아동 및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지원실적: 5,360명('07년 상반기) 	<p style="text-align: center;">5.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1,106명(보건소 등록대상) • 지원실적: 550명 도우미 양성교육/1,106가정 파견
<p style="text-align: center;">3.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공부방 운영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기존 26개소 → 134개소('08년) • 지원실적: 82개소 (국비 67개소, 시비 15개소) 	<p style="text-align: center;">6.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640여명 • 진료기관: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 지원실적: 무료진료 320명/보약 20명 /소화제 300명 제공

2) 직장가정의 양립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4)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

- <<건강가정 지원 센터1개소 운영>>**
?주요사업: 가족 교육, 가족문화, 가족문제 상담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1개소운영>>**
?주요사업: 한국어, 문화체험, 자조집단
- <<건강가정캠페인 실시>>**
? '07년 설, 추석 전 2회 실시
- <<직장 패밀리 데이>>**
?사업 대상: 시공무원 전체
?지정요일: 매주 금요일
?추진방향: 전직원 출석참여/
중앙제어실을 통한 일제 소등
- <<기업으로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사업대상: 4개 기관(공공기관 및 기업)
?사업내용: 부부관계 강화 및 의사소통 기술
?추진실적: 3개 기업 7회 운영(400여명 참여)
- <<가정폭력예방 캠페인 실시>>**
?참여기관: 공무원 관련시설 및 시민단체 등
?사업내용:
- 합동캠페인: 년2회(시 주관, 구 및 시설 상담소등 합동)
- 구별캠페인 실시: 반기 1회(구 및 시설 상담소 주관)
- 홍보물 제작 및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
- 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 실시: 년2회
?추진실적: 17개 시설 181명 참여

5)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조성

결혼 혼수인식 개선 교육

- 사업대상: 700여명(결혼 적령기 자녀를 둔 양가 부모)
- 사업내용: 새로 만들어가는 혼수문화 특강, 폐백상 차리기 및 시연
- 지원실적: 1회('07.5.16)/ 700여명 참여

예비부부교육 문화교육

- 사업대상: 10쌍/주 1회(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 추진기간: 15주('07.9월~12월)/매주 수요일
- 장 소: 대전대학교 둔산캠퍼스
- 사업내용: 건강한 가정생활분비 및 유지 교육
- 지원실적: 6회(40쌍)
와인세라피 및 부부간의사소통, 즐거운 성생활 교육등

6)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p>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시: '07년 3월 ■ 사업내용: 6대 핵심영역 35개 추진과제 ■ 추진실적: 6대 핵심영역 3개 과제 추진 완료 및 32개 과제 현재 추진중
<p>가족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기간: '07년 7.15~12.15(6개월간) ■ 연구서 발간 및 배부: 300부(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 사업내용: 대전시 가족환경의 변화와 현황 가족정책 시행계획 수립 근거 및 영역의 설정
<p>대전광역시 건강가정위원회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시: '07년 11월 중 ■ 운영위원: 20명(위원장/시장) ■ 역할: 대전광역시 가족정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심의
<p>대전광역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1개소(중구 은행동 146-2)/43,437천원(시설운영비) ■ 사업내용: 한국어교육, 가족상담, 가족교육, 문화체험, 자조집단, 친모결연 등 ■ 추진실적: 한국어 교육90명,주3회/가족교육 20회/친모결연 60명/가족상담 300여명/문화체험 4회/자조집단 3회(400여명)등 운영
<p>(가칭)행복가족지원센터 신축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기간: '07.10~'10'4(2년 6개월) ■ 위치: 유성구 관평동 767번지 ■ 사업비: 약 87억원(부지 17억/건축 70억) ■ 부지 및 연면적: 부지 4,095㎡/연면적 3,950㎡(지하 1층, 지상 4층) ■ 주요입주시설: 근로자종합복지관/건강가정지원센터(중구 은행동)이전/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중구은행동)이전/육아휴게소설치 ■ 추진실적: '07년 11월 중 부지매입 계약

IV. '07년 추진성과 및 한계

- 지
리

1. 추진성과

2. 문제점 및 한계

IV. '07년 추진성과 및 한계

1. 추진 성과



2. 문제점 및 한계



v. '08년 사업추진 방향 및 계획

차 레

1. 건강가정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가족정책인프라 확충
2. 가족돌봄 및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도움서비스 지원사업 확대
3. 직장가정의 양립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4.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5.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조성

V. '08년 사업추진 방향 및 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1. 결혼이민자 조기 사회적응을 위한 통합지원기관 간담회 실시(상·하반기/년2회)
2. 민·관 공동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간담회 및 네트워크 구축
3. 건강가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건강가정지원정책 심의 평가(상·하반기/년 2회)
4. 시 다목적 가족지원센터 신축 추진(유성구 관평동 767번지/ '07.10~'10)
5.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설치 확대 '07년(1개소/시)→'08년 2개소(시·구)
6. 결혼이민자가족실태 및 욕구조사 (대전 인적자원개발센터/ '08년 2월~7월)
7. 결혼이민자가족 통합지원방안 매월 정기포럼 및 세미나 개최 /'08년 2월 ~12월

가족돌봄 및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도움서비스 지원사업 확대

아이돌봄피지원사업

아동양육지원사업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장애아가족

독거노인
도우미 바우처

저소득층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

연말연시 비가계민을 주소지 총인구 60% 이상
정신장애, 발달장애, 뇌병변 아동이 있는 가정

35

직장가정의 양립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부부데이, 육아데이, 직장이행데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장려 및 지원 확대

다자녀 모범가정 및
가족복지 유공자 표창

소외가정, 위기가정,
가정폭력가정 등을 위한
ONE-STOP 지원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36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주부인턴사원제 실시('08년/30명)

결혼이주여성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원어민 강사 양성 후
지역아동센터 활용
/년50명

결혼이주여성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사업 실시
/2개소(시1·구1)

37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조성

건강가정 글짓기
및 응변대회
('08년 5월중)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을
위한 'UCC 가족기회
공모전 실시 및 연간
캠페인('08년 3월 부터)

다문화 수용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결혼이민자
가족 문화축제 개최
('08년 10월 중)

바람직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결혼 및
가정에 관한 교육실시
('08년 5월 중)

38



21세기 가정 경영, 이젠 코칭이다

이규창 (메타비 경영연구원 대표/코치)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쉼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세계 사람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이 노래는 ‘즐거운 나의 집(원제: Home Sweet Home)’이다. 이 노래의 작사가 존 하워드 페인은 1791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다. 웅변 선생님이었던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에 뛰어난 배우가 된 그는 영국 무대로 진출한 최초의 미국 연예인이기도 하다.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이토록 멋진 가사를 쓸 수 있었을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를 무척 부러워하겠지만 사실 존은 한평생 독신에다 집도 없이 떠돌던 나그네였다. 그가 죽기 바로 전 해였던 1851년 클라크라는 이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혀있었다고 한다. “이상한 이야기이지만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의 기쁨을 노래한 나 자신은 여태 내 집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냈으며 앞으로도 맞보지 못할 것 같구려.”

결국 그는 튀니지에 미국 영사로 갔다가 그 곳에서 숨을 거두었다. ‘꽃 피고 새가 우는 즐거운 나의 집’은 존에게는 환상일 뿐이었던 것이다.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가정이란 행복하고 평화로운 곳이라기보다 갈등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인지도 모른다. 점점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해체되는가 하면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텅겨져 나오고 있다. 이제 즐거운 집을 만드는 것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책임이 되어가고 있다.

‘즐거운 가정 만들기’ 사회적 책임

21세기에도 ‘가정’은 여전히 소중하다.

독신가정이 늘어나고, 핵가족을 넘어선 개(個)가족화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면서 가족의 해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응원군을 가족, 가정에서 찾는다. 그 곳이야말로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가족 내에 일관된 목표와 가치가 존재했다. 먹고사는 것이 힘겨운 시절에는 열심히 일해서 삶을 영위하는 것에 가족 모두가 가치를 두었다. 하지만 21세기는 가정에도 ‘경영’이 필요하다. 가정 경영은 각자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즉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들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각자가 자신의 가치를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책임을 가족 모두가 나눠가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지지 격려하는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는 코칭의 철학과 실천적인 대화 스킬은 21세기 가정 경영에 매우 핵심적이고 강력한 경쟁력을 제공할 것이다.

1. 코칭이 가정을 변화시킨다

엄청난 힘을 발휘한 ‘칭찬 한 마디’

대한민국 최초로 ‘4강 진출’의 위업을 이룬 2002년 월드컵이 낳은 최고의 스타 박지성 선수. 그는 어린 시절부터 축구만을 생각하며 축구에 자신의 인생을 걸다시피 했다. 그러나 왜소한 체격에 내성적인 그를 주목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대학에 진학할 때조차 어느 누구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축구에 대한 열정을 키워갔다. ‘깡다구’ 하나로 버틴 박지성 선수를 히딩크 감독이 일으켜 세웠다.

오늘날 세계를 누비는 선수로 성장한 박지성 선수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



이 히딩크 감독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말한다. 히딩크는 박지성 선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준 것인가? 부상으로 탈의실에 앉아있던 그에게 히딩크가 다가왔다. “박지성 너는 정신력이 아주 뛰어나서 나중에 훌륭한 선수가 될 거야.” 박지성은 황홀했다. 그는 “월드컵 기간 내내 히딩크의 그 말을 기억하면서 뛰었다.”라고 고백했다.

히딩크가 박지성 선수에게 해 준 것은 ‘칭찬 한 마디’에 불과했지만, 그 칭찬이 박지성 선수가 ‘월드 스타’로 발돋움 하는데 불쏘시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코치형 리더’의 세 가지 역할

코칭은 상대방의 발전과 성공을 돕는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다. ‘코치형 리더’가 가족 내에 있다면 가족 구성원의 성장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

코치란 말의 어원은 마차를 뜻하는 ‘coach’에서 비롯됐다. 마차에 탄 사람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가족 구성원, 특히 자녀의 성장과 발전을 원한다면, 부모가 ‘코치형 리더’로서 역할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히딩크의 예를 통해 코치형 가족 리더의 역할을 알아본다.

첫째, 상대방이 자신의 가능성과 능력, 즉 강점을 믿도록 만든다.

히딩크는 평소 박지성 선수를 눈 여겨 관찰한 결과 그의 강점이 정신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박지성 선수가 가장 힘들고 지친 순간에 인정, 칭찬함으로써 그가 스스로의 능력을 믿도록 만들었다. 사소하고 평범한 말 한 마디가 박지성 선수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선사한 것이다.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사는 가족들은 서로의 약점과 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다보니 마음으로는 서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장점을 찾아 내 인정하고 격려하기 보다는 약점을 꼬투리 잡기가 쉽다. 히딩크 감독처럼 상대방이 갖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 강점을 바라보고, 격려해야 한다.

둘째,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도록 한다.

스포츠 전문가들에 따르면 ‘월드컵 4강 진출’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보다 더 큰 히딩크의 업적이 있다면 바로 ‘생각하는 축구’를 하게 한 것이라고 한다. 히딩크는 경기를 뛰는 선수가 자신이 어디로 이동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는 축구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선수들에게 주문했다.

‘헬리콥터형 부모’란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요즘 부모들은 자식 주위에서 맴돌며 떠나지 못한다. 대학생 자녀의 문제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을 넘어서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도 부모들이 자식을 끼고 돈다는 얘기가 언론에 소개될 정도이다.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일일이 자녀의 문제에 관여할 수는 없다. 아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훈련시키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코치형 부모’는 헬리콥터처럼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조종하지는 않지만, 인공위성처럼 멀리 떨어져있지만 하는 것도 아니다. 아이들의 문제를 이해해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셋째,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히딩크가 박지성의 ‘정신력’을 알아본 것은 그에게 뭔가를 지시할 때가 아니고, 관찰하고 경청할 때 가능했다.

가정 내 대화 부족이 심각하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기 보다는 저마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전달하고 지시하는데 급급하다보니 대화는 고사하고 가

족 간의 신뢰마저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well-being과 well-doing의 균형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에서 앞서간 IT강국이다. ‘일 중독자’로 불릴 만큼 일에 몰두해온 많은 국민들의 노력의 결과이다. 이런 사람에게 “삶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너무 일에만 몰두하면 가정이나 자신은 언제 돌보시려구요.”라고 충고하지만 그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 결국 건강을 해치거나 가정문제가 생길 때까지 계속 신나게 달리기만 한다.

자동차 마니아들은 명품 자동차의 조건으로, 엔진의 마력도 좋아야 하지만 조용하고 쾌적함까지 갖춰야한다고 말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명품 인생’이란 자신의 삶과 일에서 균형을 이룬다. 일에서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안정되고 자신의 내적 성숙도 함께 균형적인 발전을 이뤄야 한다. 웰빙(Well-Being)과 웰두잉(Well-Doing)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다. Being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Doing도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밖에서 승승장구하던 능력 있는 인사들이 가정 경영에 실패해서 하루아침에 ‘허무’를 맛보는 허다한 사례가 주는 교훈이다.

지혜로운 남자 자니 령고

태평양의 키니와타라는 섬에 수완 좋고 잘 생긴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자니 령고.

그런데 이 동네에는 총각이 결혼 할 때 신부 집에 암소를 선물로 보내주는 관습이 있었다. 대개 두세 마리의 암소를 보내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자니 령고는 무려 암소 여덟 마리를 신부 집에 보냈다. 그렇다고 신부가 요즘 말로 ‘얼짱에 몸짱’이거나 유별나게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아니, 무슨 대단한 신부를 데려온다고 암소를 그렇게 많이 보내..쫓쫓..” 동네 사람은 물론 인근의 섬 사람들은 자니 령고가 생긴 것만 멀쩡하지 ‘겉뚱뚱이 팔푼이’

라며 손가락질을 했다.

어느 날 자니 텅고 집에 손님이 한 사람 찾아 왔다. 그 역시 자니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 손님은 정말 암소를 여덟 마리씩이나 보냈냐며 자세한 사연을 물어봤다. 자니가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은 결혼 지참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처가에 암소 여덟 마리를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입에 올리겠지요. 아마 영원히 그 얘길 할 겁니다.”

그 때 외출했다 돌아온 자니의 아내가 손님과 자니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소문과는 전혀 판판으로 대단한 미인이었다. 손님이 깜짝 놀라자 자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남편이 살 수 있는 가장 싼 값으로 자신을 샀다는 것이 여자에게는 평생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지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그런 상처를 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때 제 아내는 스스로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 그 누구보다 자신이 훌륭하고 좋은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래도 암소 여덟 마리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스티븐 코비의 <오늘>이란 책에 나온 얘기다.

가족 모두를 마음속 깊이 존중하고 사랑의 눈으로 들여다 볼 때 박색이 미인 되고 바보가 천재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가치 있는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2. 가정 경영을 위한 코칭 대화스킬

“여보 우리 같은 사이를 뭐라고 하지?”

“웬수”

“아니..네 글자로.”

“아, 평생웬수...”

노인들이 출연하는 TV 퀴즈 쇼에서 본 사례이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 좋은 기억만 남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평생 웬수’는 되지 말아야겠다. 화목한 가정경영을 위한 코칭 대화에 대해 몇 가지 배워본다.

효과적인 대화에는 ‘목표’가 있다

남편이 아무 연락도 없이 밤늦게 들어왔다.

“지금 몇 신줄 알아? 전화는 왜 안 받고...전화 한 통화만 해줘도 걱정은 안하잖아, 대체 뭐하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야?”라고 거침없이 화를 내는 아내에게, 남편은 집에 들어서면서 가졌던 미안한 마음은 온데간데없이 “일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야단이야?”라고 받아치기 십상이다.

아내는 남편이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다 생각하면서도 ‘감정’이 앞서서 남편의 화만 북돋웠고, 남편 역시 ‘욕’하는 반응으로, 서로가 거친 대화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만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남편이 다음에 또 늦을 일이 있을 때 미리 전화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스스로 다짐하게 하는 것이다.

“많이 늦었네.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다음부터는 전화한 통화만 해주면 좋겠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라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표현했다면 대화의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감정적 대응에 앞서 대화의 결과, 즉 ‘목표’를 생각하는 습관은 자신의 감정을 다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비법’이다.

‘화’를 다스리는 방법도 훈련하라

부부싸움을 할 때 무작정 참고 사는 아내는 남편과 악다구니 하는 아내보

다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4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팀은 “아내가 감정을 누르기만 해서는 몸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건강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여성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 몸까지 해치기 쉽다는 것이다.

분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화를 적절하고 건강하게 다스리는 자신만의 방법을 갖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큰 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댄스, 수다로 풀어내기 같은 방법도 좋다. 전문가들은 내면에 가뒀든 화를 단기간에 푸는 방법으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글을 써볼 것을 권하기도 한다. 매일 연속해서 쓰다보면 자신을 짓누르는 억압과 분노, 응어리가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분노를 표현할 때는 먼저 상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먼저 표현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나는 당신을 존경하지만 조금 전 당신이 내 말을 가로막아서 화가 났어”처럼 말이다. 또한 상대의 잘못된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신 때문에 화가 났어”보다는 “당신이 늦게 와서 화가 나”라는 표현이 좋다. 단, 분노를 한꺼번에 쏟아놓는 것, 상승작용을 일으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니 절대 피해야 한다.

정청만 잘 해도 부부간 대화 ‘술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뛰어난 언변으로 유명했다. 그를 만났던 사람들은 한결 같이 그를 대화하고 싶은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비결은 간단했다. 루즈벨트는 방문객을 만나기 전에는 반드시 방문객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만한 분야에 대해서 책을 읽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 그는 한 사람을 사로잡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자신의 언변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고 자신은 잘 들어주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경청은 이처럼 성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경청을 잘 못한다. 좋은 질문을 해놓고도 좋은 대답을 듣지 못한다. 듣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청이 가장 잘 안 되는 관계는 가족, 특히 부부간이다. 가장 불량한 경청을 '배우자 경청'이라고 할 정도로 부부간에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훈련이 잘 안 돼 있다. 편하다는 생각에 대충 듣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쌓이게 되면 상대방은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신뢰에 금이 가게 된다.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단어, 즉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의미는 7%에 불과하다고 한다. 53%는 몸짓, 40%는 어조나 감정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청을 하려면 잘 듣는 것 외에, 잘 보는 관찰, 잘 기억하는 요령도 있어야 한다. 이야기를 하는 의도, 즉 감정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내용, 즉 사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패러 프레이징 (paraphrasing), 즉 바꾸어 표현하기를 하면 경청을 더 잘 할 수 있다. 대화하는 도중에 요약하거나 의역을 해서 중요한 요지를 파악하면 오해의 소지를 훨씬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가 한 얘기는 이런 뜻이지?"라고 요약해서 되묻는 것이다. 패러 프레이징을 하기 위해 남편은 들고 있던 신문을 내려놓고 얘기하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고, 신이 난 아내는 더 즐겁고 실감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칭찬은 가족 모두를 춤추게 한다

천하의 이승엽도 일 년 내내 잘 칠 수는 없다. 빙상의 요정 김연아 조차 엉덩방아를 찧을 때가 가끔 있다.

사람은 누구나 얼마동안 잘 하다가 못하기도 하고,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면 잘하게 된다. 잘해서 칭찬 받는 주기가 끝나면 곧 못하는 주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어김없이 "칭찬 좀 해줬더니 자만해서 금방 저 모양이 됐



다”라고 욱을 먹는다. 반대로 못할 때 호되게 혼을 냈더니 애가 정신 차려서 잘 하더라는 애기 역시 마찬가지로 논리이다.

그런 착각 때문에 부모님들은 칭찬을 아끼고 야단을 더 치게 된다. 야단치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훌륭한 리더는 거꾸로 한다. 잘 나갈 때 따끔하게 질책하고, 못 나갈 때 힘을 실어 칭찬한다.

칭찬은 고래 뿐 아니라 사람도 춤추게 한다.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가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는 것이 칭찬이다. 나그네의 옷을 벗긴 것이 바람이 아닌 햇볕인 것처럼 칭찬을 들으면 사람들은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칭찬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

누구나 칭찬을 좋아한다. 인간의 기본적인 욱구이기 때문이다. 에이브러햄 매슬로우(Abraham Maslow)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에게는 다섯 단계의 욱구 <그림 참조>가 있다고 말했다. 가난한 시절에는 춥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즉 1,2단계인 생리적, 안전 욱구가 가장 중요했고, 사람들도 그 욱구를 채우기 위해 일했다. 생리적 욱구와 안전의 욱구가 충족된 오늘날, 사람들은 소속과 존경의 욱구가 충족되기를 원한다. 가장 높은 욱구인 자아실현 욱구는 하위 욱구가 채워질 때 인간을 자극한다.

결론적으로 아이나 어른이 자아실현을 하려면 3,4단계의 욱구에 대한 만

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칭찬에 인색한 사람들은 대부분 ‘칭찬할 꺼리가 없어서’ 칭찬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칭찬할 마음만 있다면 칭찬꺼리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바람직한 칭찬은 잘 한 일, 좋은 성적 등 결과보다는 노력한 과정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다. 아이의 시험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성적은 기대만큼 안 나왔지만 열심히 노력한 네가 자랑스러워.”라고 말해주는 칭찬이 아이를 더 노력하게 만든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캐롤 드웁 교수팀은 뉴욕시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퍼즐을 풀게 하고 한 집단에게는 ‘정말 똑똑하다’고 칭찬하고 다른 집단에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라고 평가한 후 이후의 학습 능력과 태도를 비교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똑똑하다는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더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소극적이 되고, 도전과 실패를 피하는 반응을 보였고 갈수록 학습 능력이 뒤쳐질 뿐 아니라 시험 때 부정행위를 하려는 유혹을 느끼는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들은 아이들은 더 어려운

문제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는 성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드웁 교수는 부모가 자녀의 능력보다는 노력을 칭찬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3. 자녀를 성공시키는 코칭 이야기

‘줄탁동기’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병아리가 밖으로 나올 때가 되어 안에서 알을 여린 부리로 쪼아대면, 알을 품고 있던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맞쪼아서 병아리가 밖으로 나오기 쉽게 도와주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함께 맞쪼아 주면 병아리가 밖으로 나오기가 훨씬 수월하다.

중요한 것은 병아리가 먼저 안에서 쪼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발성이 첫째이다. 그 다음은 어미닭의 경청이다. 어미 닭은 병아리가 쪼는 때를 기다리며 주의를 기울인다. 이 때 타이밍과 쪼는 포인트를 잘 맞추어야 한다. 때를 놓치거나 엉뚱한 곳을 쪼아대면 별 도움이 안 된다.

코칭은 상대방의 가능성과 능력을 믿는 ‘신뢰’에서 출발한다.

병아리가 때가 되면 반드시 자발적으로 알을 깨고 나올 것이라고 믿고 기다려야 한다. 부모들은 기다리는 일을 가장 어려워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미닭이 시계를 쳐다보며 ‘나올 때가 됐다’고 먼저 쪼아댄다면 일이 그르치게 된다. 자신의 타이밍에 아이들을 맞추려 하기 보다는 기다리면서 좋은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부모들이 코칭 패러다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곡된 패러다임으로 아이를 힘들게 만든 부모, 혹은 멋진 콤비 플레이로 자녀를 성공시킨 부모의 이야기를 함께 소개한다. ‘코칭형 부모’로서 패러다임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댁의 아이는 어른인가요?”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왔다. 반에서 10등 밖에 맴돌던 녀석이 7등을 했다. 대견한 아들 때문에 아빠는 신바람이 났다.

“잘 했어. 우리 아들. 다음 목표는 몇 등이야?” “6등이요.” “.....”

김이 짝 센 아빠. “야 임마, 6등이 뭐야? 최소한 3등 안엔 들어야지. 아빠 같으면 대번에 1등 하겠다.”

슬그머니 제 방에 들어간 아이는 한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아빠, 내가 어른이에요?” 며칠 뒤 아이가 뜬금없이 물었다.

“어른은 무슨? 엄마가 안 깨워주면 학교도 못 갈 녀석이.” “그러니까 아빠, 저한테 너무 큰 기대 걸지 마세요.”

초등학생 아이야 말할 것도 없고, 중고생이라 해도 키만 멀쭉하게 컸지 하는 짓은 영판 어린애들이다. 아이는 술 마셔도 안 되고, 밤늦게 이성 친구랑 돌아다녀도 절대 안 된다. 어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아이에게 뭔가 요구할 땐 어른 대하듯 한다.

인터넷은 정확히 30분만 하고 발딱 일어서야 하며, 영어 성적이 떨어지면 곧바로 하루에 30개씩 단어를 외워야 한다. “그만 일어나야지” 엄마가 한마디 하면 “엎”하고 세수하러 달려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못하는 아이에겐 지청구가 끊이지 않는다. 아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이인 것이다.

‘어린’이라는 말의 어원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어른보다 의지와 능력이 약한 사람이 바로 아이다.

댁의 아이는 혹시 어른인가? 그렇지 않다면 아이의 눈높이로 봐주고 아이가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천천히 가야 한다. 진짜 어른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렸죠

텍사스 레인저스의 명포수였던 짐 선버그는 은퇴한 후 유명 강사로 활약했다. 어느 날 교도소를 방문한 그는 죄수들에게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줬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캐치볼을 하다 공이 머리 위로 날아가면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와, 공을 이렇게 멀리 던질 수 있다니. 언젠가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있을 거야.”

타격 연습을 하다 헛스윙을 했을 때 아버지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힘 있는 스윙이었어. 그 정도 힘이라면 훌륭한 메이저 리거 감이야!”

공이 울타리를 넘어 이웃집 유리창을 켜었을 때나 차의 지붕 위에 떨어져 큰돈을 물어줘야 할 때도 아버지는 “그렇게 멀리 날아가는 공을 칠 수 있다면 메이저리그에 가는 것은 시간문제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은 자신이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결과 선수생활을 하는 동안 세 번의 올스타, 여섯 번의 골든글러브 수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야기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죄수가 다가와 말했다. “선버그씨, 당신과 반대로 내 아버지는 늘 내가 못난 놈이고, 뭐하나 잘하는 것 없는데다 언젠가는 칠창신세가 될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죠. 그래서 나 역시 내 아버지의 꿈을 이뤄드렸습니다”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는가? 공부 1등하고 좋은 대학가는 것 그 이상을 상상해 보라. 앞으로 아이가 잘 할 때나 못할 때나 그 모습을 떠올리며 격려해 준다면 아이는 분명 아버지의 꿈을 이뤄 줄 것이다.

아버지는 내 날개를 받쳐주는 바람입니다

아들은 ‘턱’, 아버지의 이름은 ‘덕 호잇’.

턱은 태어날 때 탯줄이 목을 감아 뇌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로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의사는 부모에게 아이를 포기하라고 했지만 부모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아이는 몸을 쓸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지만 시간이 흘러 컴퓨터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턱은 컴퓨터로 “달리다, 달리고 싶다.”라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아들을 앉히고 달리기 시작했다. 8km 마라톤 대회를 완주한 후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오늘 난생 처음으로 제 몸의 장애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4년 뒤, 아들은 더 큰 꿈을 꾸었다. 바로 ‘철인 3종 경기’에 나가는 것. 아버지는 수영도 할 줄 몰랐고, 자전거를 타본 적도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다. 그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미친 것이라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하기로 했다. 허리에 고무배를 묶고 3.9km 바다를 수영하고 아들과 함께 자전거로 180.2km를 달리고 휠체어를 밀며 42.195km 마라톤을 완주했다. 아들은 컴퓨터를 통해 말했다. “아버지는 나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내 날개를 받쳐주는 바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모두 다 똑같이 행동하지는 않지만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빛 안에는 같은 사랑이 담겨있다. 자신의 몸을 받쳐 새를 띄우는 바람에게는 아이가 자유롭게, 높이 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일 것이다.

4. 지금 당장 코칭대화를 시작하라

한때 무한한 경이로움을 느끼던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신발 끈을 묶고, 수영을 하고, 행성과 공룡의 이름을 암기하고, 대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배우면서 하루하루를 세상의 위대한 신비를 정복하는 기회로 여겼다. 어린 시절 그는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했지만 어느새 호기심은 균형으로 바뀌고 발견과 모험은 안전과 평온으로 바뀐다. 아이들은 부모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또 학교생활을 하면서 어린 시절의 잠재력을 점차 잃어버리게 된다.

네 살배기 아이들은 보통 하루에 3백 번의 질문을 한다. 보는 족족 궁금한 것이 많은 아이들은 깨어있는 동안 시간당 최소한 스물다섯 번 이상의 질문을 하는 셈이다. 부모들은 그런 아이들이 실통해서 "그런 게 다 궁금했어?"라며 머리를 쓰다듬고 친절하게 대답을 해준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아빠에게 물어봐"라며 공을 넘기거나, "그만 좀 해!"라며 아이들의 입을 막아버린다. 정답이 뻔한 질문이야 어려울 것 없지만 때로는 정답도 없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쏟아지기 때문이다.

아이들도 그런 경험을 반복하면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는다. 하루 3백 번 하던 질문이 대학 졸업하면서는 하루 20번으로 줄어든다. 나이가 들고 철이 나면서 질문본능은 현격하게 퇴화한다.

대입에서 논술이 당락을 판가름 하고, 입사시험도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달달 외워 답을 적는' 실력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21세기 경쟁력 있는 인재로 살아남으려면 창의력을 키워야 한다.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인재가 될 것인지 아이들은 물론 직장인들도 머리를 싸매고 있다.

자녀의 창의력을 높이려면 가정내 대화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엄마들은 잔소리 섞인 말을 많이 줄이고, 아빠들은 다양하고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져야 한다. 잔소리 따발총을 쏘는 엄마, 훈계만 하는 아빠에서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아이와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코칭이 그 답이 될 수 있다.

뛰어난 감독은 자신이 열심히 뛰는 사람이 아니라 선수가 열심히 뛰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열심히 뛰고 행복하게 만드는 가족 경영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코칭 대화를 시작하자.